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조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10호 [루체 제23427호] 주제100 (2011)년 4월 20일 (수요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백두산 선군청년발전소 건설 지원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백두산 선군청년발전소 건설을 성심성의로 지원한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

스스러운 백두대지에 조국의 만년재부를 일며 세우는 데 기여할 일만 남고 평양시 무역판리국 로동자 주민은 일은 어려워 일에 걸쳐 돌격대원들에게 문화기재, 생활필수품 등을 보내주었다.

전자공업성 산하단위 부원 정형도는 선군청년 청년친위의 본부를 자각하고 여러 동안 많은 지원물자를 가지고 전설장을 찾아 돌격대원들의 로열투쟁을 고무해주었다.

무역성 로동자 총경주는 시대를 빛내이는 기념비적 창조를 함께 일떠세운 일은 많이 찾았으며 탁월한 대회를 김정순도 드러운 애국의 마음안고 전설자들을 물심 탐면으로 도와주었다.

발전소건설은 일군들에게 통제로 말려준 당의 믿음을 간직하고 묘향지도로 로동자 최명선은 돌격대에 헌신하여 맡은 일을 잘하면서 지원사업에도 적

극 참가하였으며 청년동맹중앙위원회 일군 계은심, 국제 청소년련행사 안내통역원들인 리금영, 최서향도 이 사업에 성의를 다하였다.

백두산 선군청년발전소 건설현장 부원 리유철, 로동자 진옥숙, 강경심, 조선과학기술총련맹 중앙위원회 기사 황봉삼, 특례운성 지령원 김광복은 힘 있는 지원으로 돌격대원들이 발전소 건설에서 위험을 멀치도록 하는데 기여하였다.

한부도협동수산경직원회 로동자 김철만, 설비조립원합기업소 준경직원회장 로동자 한광우, 해산신해장동 2810민법 김영실도 성의껏 장만한 물자들을 건설부에 보내온 일은 일을 많이 찾았으며 탁월한 대회를 김정일동지께서 보내신 감사를 받아온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이 영광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발전소 건설자리를 더 잘함으로써 활동의 날을 앞당기는데 이바지할 혁명적 열의에 넘쳐있다.

발전소 건설은 일군들에게 통제로 말려준 당의 믿음을 간직하고 묘향지도로 로동자 최명선은 돌격대에 헌신하여 맡은 일을 잘하면서 지원사업에도 적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여러 나라에서 출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김일성동지의 청년운동사』로도 청년들은 조국의 미래에 그들을 어떻게 육성하고 준비시키는가 하는데 따라 민족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명백한 티이이다.

단행본의 미리글에는 다음과 같이 써져 있다.

우리는 미지 않아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탄생일을 맞이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는 혁명활동의 첫 시기부터 청년운동을 혁명의 승화와 민족의 운명을 좌우하는 사활적인 문제로 간주하시고

의 명절인 태양절에 즈음하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저작 『김일성동지의 청년운동사』를 출판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청년운동사』와 령도적력을 계승하고 빛내여나갈때 대내외 사상을 제시하여 올 수많은

한 사람을 제시하여 올 수많은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

선군시대 26호 모범 기대 창조 운동 선구자 대회 참가자들 금수산기념 궁전을 찾아 경의 표시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선군시대 26호 모범 기대 창조 운동 선구자 대회 참가자들이 19일 금수산기념 궁전을 찾아 경의를 표시하였다.

태양의 성지를 방문한 대회 참가자들은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이시며 그들은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 시여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 시기까

전당, 전군, 전민이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

령도를 높이 받들어나가자!

국 참가하였으며 청년동맹중앙위원회 일군 계은심, 국제 청소년련행사 안내통역원들인 리금영, 최서향도 이 사업에 성의를 다하였다.

백두산 선군청년발전소 건설현장 부원 리유철, 로동자 진옥숙, 강경심, 조선과학기술총련맹 중앙위원회 기사 황봉삼, 특례운성 지령원 김광복은 힘 있는 지원으로 돌격대원들이 발전소 건설에서 위험을 멀치도록 하는데 기여하였다.

한부도협동수산경직원회 로동자 김철만, 설비조립원합기업소 준경직원회장 로동자 한광우, 해산신해장동 2810민법 김영실도 성의껏 장만한 물자들을 건설부에 보내온 일은 일을 많이 찾았으며 탁월한 대회를 김정일동지께서 보내신 감사를 받아온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이 영광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발전소 건설자리를 더 잘함으로써 활동의 날을 앞당기는데 이바지할 혁명적 열의에 넘쳐있다.

발전소 건설은 일군들에게 통제로 말려준 당의 믿음을 간직하고 묘향지도로 로동자 최명선은 돌격대에 헌신하여 맡은 일을 잘하면서 지원사업에도 적

는 혁명적 열의에 주목을 끄는 것은 자기

령도자로 날은 및 낳는 결실이다.

스웨리에 주제사상연구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 18회, 영웅적 조선민족군장 79회에 즈음하여 브라스웨리에 기네에서 3월 29일부터 4월 2일까지의 기간에 강연회와 영화감상회가 진행되었다.

행사들은 브라질 쌈빠나시 시청과 의회, 스웨리에의 공산당, 스웨리에 주제사상연구소조, 기네 광장종합대학의 인사들과 본사기자

는 혁명적 열의에 주목을 끄는 것은 자기

령도자로 날은 및 낳는 결실이다.

스웨리에 주제사상연구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 18회, 영웅적 조선민족군장 79회에 즈음하여 6일과 7일로 브라질 쌈빠나시 시청과 의회, 스웨리에의 공산당, 스웨리에 주제사상연구소조, 기네 광장종합대학의 인사들과 본사기자

는 혁명적 열의에 주목을 끄는 것은 자기

령도자로 날은 및 낳는 결실이다.

스웨리에 주제사상연구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 18회, 영웅적 조선민족군장 79회에 즈음하여 6일과 7일로 브라질 쌈빠나시 시청과 의회, 스웨리에의 공산당, 스웨리에 주제사상연구소조, 기네 광장종합대학의 인사들과 본사기자

는 혁명적 열의에 주목을 끄는 것은 자기

령도자로 날은 및 낳는 결실이다.

스웨리에 주제사상연구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 18회, 영웅적 조선민족군장 79회에 즈음하여 6일과 7일로 브라질 쌈빠나시 시청과 의회, 스웨리에의 공산당, 스웨리에 주제사상연구소조, 기네 광장종합대학의 인사들과 본사기자

는 혁명적 열의에 주목을 끄는 것은 자기

령도자로 날은 및 낳는 결실이다.

스웨리에 주제사상연구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 18회, 영웅적 조선민족군장 79회에 즈음하여 6일과 7일로 브라질 쌈빠나시 시청과 의회, 스웨리에의 공산당, 스웨리에 주제사상연구소조, 기네 광장종합대학의 인사들과 본사기자

는 혁명적 열의에 주목을 끄는 것은 자기

령도자로 날은 및 낳는 결실이다.

스웨리에 주제사상연구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 18회, 영웅적 조선민족군장 79회에 즈음하여 6일과 7일로 브라질 쌈빠나시 시청과 의회, 스웨리에의 공산당, 스웨리에 주제사상연구소조, 기네 광장종합대학의 인사들과 본사기자

는 혁명적 열의에 주목을 끄는 것은 자기

령도자로 날은 및 낳는 결실이다.

스웨리에 주제사상연구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 18회, 영웅적 조선민족군장 79회에 즈음하여 6일과 7일로 브라질 쌈빠나시 시청과 의회, 스웨리에의 공산당, 스웨리에 주제사상연구소조, 기네 광장종합대학의 인사들과 본사기자

는 혁명적 열의에 주목을 끄는 것은 자기

령도자로 날은 및 낳는 결실이다.

스웨리에 주제사상연구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 18회, 영웅적 조선민족군장 79회에 즈음하여 6일과 7일로 브라질 쌈빠나시 시청과 의회, 스웨리에의 공산당, 스웨리에 주제사상연구소조, 기네 광장종합대학의 인사들과 본사기자

는 혁명적 열의에 주목을 끄는 것은 자기

령도자로 날은 및 낳는 결실이다.

스웨리에 주제사상연구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 18회, 영웅적 조선민족군장 79회에 즈음하여 6일과 7일로 브라질 쌈빠나시 시청과 의회, 스웨리에의 공산당, 스웨리에 주제사상연구소조, 기네 광장종합대학의 인사들과 본사기자

는 혁명적 열의에 주목을 끄는 것은 자기

령도자로 날은 및 낳는 결실이다.

스웨리에 주제사상연구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 18회, 영웅적 조선민족군장 79회에 즈음하여 6일과 7일로 브라질 쌈빠나시 시청과 의회, 스웨리에의 공산당, 스웨리에 주제사상연구소조, 기네 광장종합대학의 인사들과 본사기자

는 혁명적 열의에 주목을 끄는 것은 자기

령도자로 날은 및 낳는 결실이다.

스웨리에 주제사상연구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 18회, 영웅적 조선민족군장 79회에 즈음하여 6일과 7일로 브라질 쌈빠나시 시청과 의회, 스웨리에의 공산당, 스웨리에 주제사상연구소조, 기네 광장종합대학의 인사들과 본사기자

는 혁명적 열의에 주목을 끄는 것은 자기

령도자로 날은 및 낳는 결실이다.

스웨리에 주제사상연구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 18회, 영웅적 조선민족군장 79회에 즈음하여 6일과 7일로 브라질 쌈빠나시 시청과 의회, 스웨리에의 공산당, 스웨리에 주제사상연구소조, 기네 광장종합대학의 인사들과 본사기자

는 혁명적 열의에 주목을 끄는 것은 자기

령도자로 날은 및 낳는 결실이다.

스웨리에 주제사상연구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 18회, 영웅적 조선민족군장 79회에 즈음하여 6일과 7일로 브라질 쌈빠나시 시청과 의회, 스웨리에의 공산당, 스웨리에 주제사상연구소조, 기네 광장종합대학의 인사들과 본사기자

는 혁명적 열의에 주목을 끄는 것은 자기

령도자로 날은 및 낳는 결실이다.

스웨리에 주제사상연구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 18회, 영웅적 조선민족군장 79회에 즈음하여 6일과 7일로 브라질 쌈빠나시 시청과 의회, 스웨리에의 공산당, 스웨리에 주제사상연구소조, 기네 광장종합대학의 인사들과 본사기자

는 혁명적 열의에 주목을 끄는 것은 자기

령도자로 날은 및 낳는 결실이다.

스웨리에 주제사상연구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 18회, 영웅적 조선민족군장 79회에 즈음하여 6일과 7일로 브라질 쌈빠나시 시청과 의회, 스웨리에의 공산당, 스웨리에 주제사상연구소조, 기네 광장종합대학의 인사들과 본사기자

는 혁명적 열의에 주목을 끄는 것은 자기

령도자로 날은 및 낳는 결실이다.

스웨리에 주제사상연구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 18회, 영웅적 조선민족군장 79회에 즈음하여 6일과 7일로 브라질 쌈빠나시 시청과 의회, 스웨리에의 공산당, 스웨리에 주제사상연구소조, 기네 광장종합대학의 인사들과 본사기자

는 혁명적 열의에 주목을 끄는 것은 자기

령도자로 날은 및 낳는 결실이다.

스웨리에 주제사상연구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 18회, 영웅적 조선민족군장 79회에 즈음하여 6일과 7일로 브라질 쌈빠나시 시청과 의회, 스웨리에의 공산당, 스웨리에 주제사상연구소조, 기네 광장종합대학의 인사들과 본사기자

는 혁명적 열의에 주목을 끄는 것은 자기

령도자로 날은 및 낳는 결실이다.

스웨리에 주제사상연구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 18회, 영웅적 조선민족군장 79회에 즈음하여 6일과 7일로 브라질 쌈빠나시 시청과 의회, 스웨리에의 공산당, 스웨리에 주제사상연구소조, 기네 광장종합대학의 인사들과 본사기자

는 혁명적 열의에 주목을 끄는 것은 자기

령도자로 날은 및 낳는 결실이다.

스웨리에 주제사상연구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 18회, 영웅적 조선민족군장 79회에 즈음하여 6일과 7일로 브라질 쌈빠나시 시청과 의회, 스웨리에의 공산당, 스웨리에 주제사상연구소조, 기네 광장종합대학의 인사들과 본사기자

는 혁명적 열의에 주목을 끄는 것은 자기</p

은혜로운 사랑 속에 전변된 기초식품생산기지

사회원기초식품공장에 어려워 있는 경도의 차우를 더듬어

올해에 다시 한번 경공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 생활향상에서 결정적 전환을 일으킬 때 대한 당시 전투적 호소를 높여 밭들고 비약의 열 품을 세 차게 일으키며 생산돌격의 앞장에서 나아가는 단위들 가운데는 사회원기초식품공장 있다.

당의 현명한 평도의 순길 아래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훌륭히 꾸려져 인민들의 식생활에 필요한 가지가기 초식품들을 생산하고 있는 사회원기초식품공장,

지난 1월 이 공장을 찾았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일군들과 함께 경공업의 기술개선사업을 자체의 힘으로 짧은 기간에 성과적으로 끌고나온 생산을 정상화하여 인민 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하고 있는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였다.

얼마전 대고조의 기상이 나에게는 이곳을 찾았던 우리는 현대적으로 꾸려진 공장의 여러 곳을 돌아보면서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계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평도업적을 뜨겁게 새겨안게 되었다.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 하시였다.

«나는 끊임없이 범열을 우리의 사회주의 조국 그 속에서 더욱 보람차고 행복한 삶을 누릴 우리 인민의 모습을 그리며 그 어떤 난관도 달게 여기며 일하고 있습니다.»

기초식품생산기지로서의 면모를 훌륭히 갖춘 공장의 드넓은 구내에서 우리와 만난 지 배운 은경에 하는 장군님을 자기들의 일터에 모시었던 영광의 그날을 생각하면 꿈만 같다고 하면서 가슴뜨거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한겨

울의 추위가 계속되는 험한 날씨에 경애하는 장군님을 공장에 모시게 된 이후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기쁨과 함께 송구스러움을 금할 수 없었다.

하지만 공장에 도착하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오히려 예우를 주운데 밖에 나와있는가고 일군들을 나무랄 하면서 그들과 다정히 인사를 나누고 있었다.

새 해 정초부터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대한 끝없는 협진지지도의 길을 이어 가시는 자신의 로고에 대하여서는 생각지 않고 전사들의 진가를 헤아려 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을 우러르는 일군들의 가슴은 뜨거운 격정으로 설레었다.

이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기초식품생산공정 도앞에서 해설을 들으신 다음 공장의 여러 곳을 돌아보았고,

간장작업반, 기름작업반을 비롯한 여러 생산공정들을 돌아보면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기술개선점과 생산실태를 조제으로 해보고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자체의 힘과 기술로 모든 작업반을 현대적으로 꾸려놓지 못하였을 것이다. 이제는

인민들의 식생활과 관련한 기초식품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초식품공장을 건설하도록 하여야 하겠다. …

사회원기초식품공장도 경애하는 장군님의 은혜로운 순길 아래 마련된 기초식품생산기지의 하나인 것이다.

인민들의 식생활과 관련한 기초식품제를 두고 그처럼 마음쓰시며 자신께서 바쳐오신 그리고는 생각지 않으므로 공장의 힘과 동계급이 이룩한 성과를 높이 평가해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을 우러르며 일군들은 인민에 대한 그의 한없이 숭고한 사랑을 다해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인민생활을 높이는 데 이바지 할 현대적인 기초식품생산장을 각 도에 건설할 때 대하여 가르쳐주시면서 공사에 필요한 자금과 자재, 설비들을 우선적으로 보장해주도록 하시였다.

어찌 잊을 수 있으랴.

그때로 말하면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경제봉쇄책 동파 뿐이은 자연 해로 하여 다른 부문들과 마찬가지로 식료공업부문도 생산에서 커다란 지장을 받고있던 시기였다.

나라의 이러한 경제사정으로부터 일군들은 인민들의 식생활과 관련된 간장이나 된장같은 기초식품제 문제에는 미처 관심을 돌리지 않았고,

하지만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조국수호의 길을 이어 가시는 속에서도 인민생활문제에 대하여 깊이 마음쓰시며 기초식품생산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구상을 절쳐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사람들의 식생활에 서점과 간장, 소금은 기초적이면서도 기본적인 식료제품이라고 기초식품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일련의 조치들을 내세우고 원가로 허락하고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자체의 힘과 기술로 모든 작업반을 현대적으로 꾸려놓고자 했다.

간장작업반, 기름작업반을 비롯한 여러 생산공정들을 돌아보면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기술개선점과 생산실태를 조제으로 해보고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자체의 힘과 기술로 모든 작업반을 현대적으로 꾸려놓고자 했다.

우리가 기초식품공장을 새로 일떠세우기 정말 잘하였다. 소금과 간장, 된장과 같은 기초식품이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부족하고 어려웠던 고난의 행군시기에 기초식품공장을 건설하도록 하였다. 우리에게 난판에 놓아 하면서 주지 않았더라면 지금과 같이 훌륭한 기초식품생산기지를 꾸려놓지 못하였을 것이다. 이제는

우리가 기초식품제를 새로 일떠세우기 정말 잘하였다. 소금과 간장, 된장과 같은 기초식품이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부족하고 어려웠던 고난의 행군시기에 기초식품공장을 건설하도록 하였다. …

사회원기초식품공장도 경애하는 장군님의 은혜로운 순길 아래 마련된 기초식품생산기지의 하나인 것이다.

이와 함께 절세의 위인의 불멸의 평도자들이 어린 일터를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더욱 뚜렷한 조건으로 일어나고자 하는 그들의 힘과 동계급이 이룩한 성과를 높이 평가해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을 우러르며 일군들은 인민에 대한 그의 한없이 숭고한 사랑을 다해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인민생활을 높이는 데 이바지 할 현대적인 기초식품제 문제를 각 도에 건설할 때 대하여 가르쳐주시면서 공사에 필요한 자금과 자재, 설비들을 우선적으로 보장해주도록 하시였다.

이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인민생활에 필요한 각종 제품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하면서 일군들에게 조선인민군 대에서 먼저 현대적인 기초식품공장을 건설하도록 해당한 대책을 주시였다.

간장작업반, 기름작업반을 비롯한 여러 생산공정들을 돌아보면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기술개선점과 생산실태를 조제으로 해보고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자체의 힘과 기술로 모든 작업반을 현대적으로 꾸려놓고자 했다.

우리가 기초식품제를 새로 일떠세우기 정말 잘하였다. 소금과 간장, 된장과 같은 기초식품이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부족하고 어려웠던 고난의 행군시기에 기초식품공장을 건설하도록 하였다. …

사회원기초식품공장도 경애하는 장군님의 은혜로운 순길 아래 마련된 기초식품생산기지의 하나인 것이다.

이와 함께 절세의 위인의 불멸의 평도자들이 어린 일터를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더욱 뚜렷한 조건으로 일어나고자 하는 그들의 힘과 동계급이 이룩한 성과를 높이 평가해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을 우러르며 일군들은 인민에 대한 그의 한없이 숭고한 사랑을 다해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인민생활을 높이는 데 이바지 할 현대적인 기초식품제 문제를 각 도에 건설할 때 대하여 가르쳐주시면서 공사에

필생의 사명

우리는 지금 홍남가스화대 상 건설장에 서 있다. 짧은 기간에 만 사람을 놀래우는 대 기적이 창조된 성스러운 땅이다.

하늘을 페지르며 거창하게 솟아오른 수소정제탑과 탄산 가스흡착탑들, 공사장을 꽉 메운 각양각색의 건축구조물들…

파연 그 무엇이 이런 대기적, 대변력을 알아왔는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전체 당원들은 당의 밀음과 기대를 심장깊이 새기고 대고조의 선봉으로서 모든 인생순간을 값비싸게 헌신하고 위로로 빛내여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여기에 홍남가스화대 상 건설자들이 가스화 1계열 공사에서 홍남의 기적, 조선의 기적을 창조하면 격전의 3·9 일의 일단을 펼친다.

격전의 3·9일!

정녕 시간으로 흐른 나날이 었던가.

위대한 장군님께서 강추위도 마다하지 않고서 지난 1월 홍남가스화대 상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신 그 날짜였다.

홍남비료련합기업소의 당, 행정군들의 협의회에서는 이런 불같은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동무들, 지금 온 나라가 우리 홍남을 지켜보았다. 가스화대 상건설의 주인은 우리들이다. 바로 우리 홍남의 당원들이 하루빨리 가스화공정건설을 앞당겨 끌내고 위대한

장군님께 승리의 보고, 기쁨의

선군천리마를 타고 대기적, 대비약을 안아온 선봉투사들

홍남가스화대 상공사에

보고를 드리자.

당책임일군인 김태문동무의 호소에 지배인과 기사장을 비롯한 홍남의 일군들과 당원들은 서로서로 손들을 염습해 들었다.

제일 추운 날 또다시 건설장을 찾으시어 일을 많이 했다고 뜨거운 사랑을 베풀어 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은정을 가슴마다에 새겨안은 홍남땅의 당원들은 이렇게 장군님의 헌지지도 강행 군속으로 심장의 박동을 맞추며 가스화 1계열 공사를 앞당기기 위한 새로운 전투에 들어갔다.

홍남가스화대 상공사는 단순히 나라의 비료공업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경제실무적인 공사만이 아니었다.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제재와 봉쇄책동으로서 우리가 일어서는가 아니면 주저 않는가 하는 사상의 대결전, 정신력의 대결전이었다.

홍남에서 비료가 쓸어나오기 힘들어지 않는 사람들, 우리가 잘 살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힘을 더해줄 것을 향해 힘을 더해줄 것이다.

『자기생의 혁명정신으로 조선로동계급의 본래를 보여 주자!』

통신기기련합기업소의 당원들이 신심드높이, 용기백배하여 멀쳐일어났다. 난판이 앞을

가로막았지만 결사판철의 정신으로 끊어나갔다.

제1제작장에서 수소정제탑과 탄산가스흡착탑을 제작할 때의 일이다.

팀의 내면용접을 위한 전투를 놓고 1제작장 직장장 정수철동무는 선뜻 결심을 내리지 못하였다. 그것은 팀의 내부를 용접할 때에 용접가스가 쉽게 빠지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때 송길영, 리인호동무를 비롯한 당원들이 앞에 나섰다.

『직장장동무, 우리가 언제 쉬운 걸만 걸었습니까. 결심하십시오!』

우리 당원들이 결사대를 끊고 기어이 팀을 완성하겠습니까?

물론 가스가 빠진 다음 탈을 안전하게 완성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톡성의 당원들은 안전한 한 걸을 끄적지 않았다.

장기선, 박명희, 김동원동무를 비롯한 당원들도 앞을 다투어 나섰다.

초급당비에서 김창학동무의 힘 있는 정치사업이 당원대 중의 심장에 불을 달았다.

동제애에서 내면용접과 염마 작업을 맞교대로 진행하는 전투는 참으로 치열하였다. 가스가 자욱한 텁안에서 1제작장의 당원들은 낫과 밤이 따로 없는 대결전을 벌였다.

이렇게 그들은 불굴의 투쟁 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몇 개월은 결사판철을 끊어나갔다.

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몇 개월은 결려야 한다면 수소정제탑과 탄산가스흡착탑 10여대에 달하는 방대한 작업량을 단 17일동안에 끌었다.

그뿐이 아니다. 톡성의 당원들은 용접분리 탐기제작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의 하나로 나섰던 내부각판제를 분리 탐기제작에 넣는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에도, 수소정제탑을 제작하고 수소정제탑을 통제 경관을 불러온 문제를 해결하였다.

『기증기, 탐을 내리라!』

비록 같은 웨침소리와 함께 비호각이 몸을 날려 언제 어려운 일이 벌어질지 모를 육중한 탐밀으로 육박해들어가는 그는 연공직장 초급당비에서 김영철장을.

그의 뒤를 따라 당원들이 리통호, 정도선동무들도 탐밀에 자기의 한 몸을 서슴없이 들었다. 톡성 당원들이 일인줄 알면서도 순간의 주저도 없이 격전장에 용약 뛰여든 당원들이 주유원, 진평일, 리철근, 유태우, 허정우, 정진철 등 제기되는 각 종 당원들의 제작과 설치를 당경에서 조아악은 날자까지 기어이 완성하여 불가능을 모르는 당원들의 결심이 결코 빙 말이 아님을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그의 뒤를 따라 당원들이 리통호, 정도선동무들도 탐밀에 자기의 한 몸을 서슴없이 들었다. 톡성 당원들이 일인줄 알면서도 순간의 주저도 없이 격전장에 용약 뛰여든 당원들이 주유원, 진평일, 리철근, 유태우, 허정우, 정진철 등 제기되는 각 종 당원들의 제작과 설치를 당경에서 조아악은 날자까지 기어이 완성하여 불가능을 모르는 당원들의 결심이 결코 빙 말이 아님을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그 비결은 다른데 있지 않다. 우리와 만난 도당일군인 전인철 동무는 격전의 3·9일을 뜨겁게 추억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낮이나 밤이나 전투를 벌리다가도 우리 당원들과 건설자들은 위대한 장군님 계시는 저멀리 평양의 하늘가를 바라보며 힘을 얻은 히트습니다. 가스화기제련합기업소의 설계 실제당원인 한천동무, 기능공이며 오랜 당원들이 지동명, 박춘실동무들은 대형 암죽기시운전과 공기려파기제작을 비롯하여 기술적으로 뛰어난 힘을 얻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시련이 막아서 때마다 결사판철의 정신을 지닌 이런 당원들의 불굴의 정신력을 떠나면서 수소정제탑을 비롯한 열교환기, 향각기, 변성탑, 탄산가스흡착탑 등 수십대의 현대적인 설비를 다수 받아들여 대처해온 힘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힘 있는 부대, 혁사가 있는 건설부대로 자랑떨쳐온 설비조립련합기업소의 당원들은 그 기간을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 그 어떤 조건이 좋아서가 아니었다.

그들만이 아니라 천광업

연공직장 연공들이 수소정제 탑을 설치할 때에 있은 일이다. 그날따라 세찬 바다비람이 불어면서 탑을 들어올리던 기중기가 중심을 잡지 못하여 한쪽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하였다.

바로 이때 남먼저 고임목을 들고 중량물인 수소정제탑으로 달려가는 사람이 있었다.

『기증기, 탐을 내리라!』

비록 같은 웨침소리와 함께 비호각이 몸을 날려 언제 어려운 일이 벌어질지 모를 육중한 탐밀으로 육박해들어가는 그는 연공직장 초급당비에서 김영철장을.

그의 뒤를 따라 당원들이 리통호, 정도선동무들도 탐밀에 자기의 한 몸을 서슴없이 들었다. 톡성 당원들이 일인줄 알면서도 순간의 주저도 없이 격전장에 용약 뛰여든 당원들이 주유원, 진평일, 리철근, 유태우, 허정우, 정진철 등 제기되는 각 종 당원들의 제작과 설치를 당경에서 조아악은 날자까지 기어이 완성하여 불가능을 모르는 당원들의 결심이 결코 빙 말이 아님을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그 비결은 다른데 있지 않다. 우리와 만난 도당일군인 전인철 동무는 격전의 3·9일을 뜨겁게 추억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낮이나 밤이나 전투를 벌리다가도 우리 당원들과 건설자들은 위대한 장군님 계시는 저멀리 평양의 하늘가를 바라보며 힘을 얻은 히트습니다. 가스화기제련합기업소의 설계 실제당원인 한천동무, 기능공이며 오랜 당원들이 지동명, 박춘실동무들은 대형 암죽기시운전과 공기려파기제작을 비롯하여 기술적으로 뛰어난 힘을 얻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시련이 막아서 때마다 결사판철의 정신을 지닌 이런 당원들의 불굴의 정신력을 떠나면서 수소정제탑을 비롯한 열교환기, 향각기, 변성탑, 탄산가스흡착탑 등 수십대의 현대적인 설비를 다수 받아들여 대처해온 힘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힘 있는 부대, 혁사가 있는 건설부대로 자랑떨쳐온 설비조립련합기업소의 당원들은 그 기간을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 그 어떤 조건이 좋아서가 아니었다.

그들만이 아니라 천광업

연공직장 연공들이 수소정제 탑을 설치할 때에 있은 일이다. 그날따라 세찬 바다비람이 불어면서 탑을 들어올리던 기중기가 중심을 잡지 못하여 한쪽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하였다.

바로 이때 남먼저 고임목을 들고 중량물인 수소정제탑으로 달려가는 사람이 있었다.

『기증기, 탐을 내리라!』

비록 같은 웨침소리와 함께

비호각이 몸을 날려 언제 어려운 일이 벌어질지 모를 육중한 탐밀으로 육박해들어가는 그는 연공직장 초급당비에서 김영철장을.

그의 뒤를 따라 당원들이 리통호, 정도선동무들도 탐밀에 자기의 한 몸을 서슴없이 들었다. 톡성 당원들이 일인줄 알면서도 순간의 주저도 없이 격전장에 용약 뛰여든 당원들이 주유원, 진평일, 리철근, 유태우, 허정우, 정진철 등 제기되는 각 종 당원들의 제작과 설치를 당경에서 조아악은 날자까지 기어이 완성하여 불가능을 모르는 당원들의 결심이 결코 빙 말이 아님을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그 비결은 다른데 있지 않다. 우리와 만난 도당일군인 전인철 동무는 격전의 3·9일을 뜨겁게 추억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낮이나 밤이나 전투를 벌리다가도 우리 당원들과 건설자들은 위대한 장군님 계시는 저멀리 평양의 하늘가를 바라보며 힘을 얻은 히트입니다. 가스화기제련합기업소의 설계 실제당원인 한천동무, 기능공이며 오랜 당원들이 지동명, 박춘실동무들은 대형 암죽기시운전과 공기려파기제작을 비롯하여 기술적으로 뛰어난 힘을 얻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시련이 막아서 때마다 결사판철의 정신을 지닌 이런 당원들의 불굴의 정신력을 떠나면서 수소정제탑을 비롯한 열교환기, 향각기, 변성탑, 탄산가스흡착탑 등 수십대의 현대적인 설비를 다수 받아들여 대처해온 힘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힘 있는 부대, 혁사가 있는 건설부대로 자랑떨쳐온 설비조립련합기업소의 당원들은 그 기간을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 그 어떤 조건이 좋아서가 아니었다.

그들만이 아니라 천광업

연공직장 연공들이 수소정제 탑을 설치할 때에 있은 일이다. 그날따라 세찬 바다비람이 불어면서 탑을 들어올리던 기중기가 중심을 잡지 못하여 한쪽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하였다.

바로 이때 남먼저 고임목을 들고 중량물인 수소정제탑으로 달려가는 사람이 있었다.

『기증기, 탐을 내리라!』

비록 같은 웨침소리와 함께

비호각이 몸을 날려 언제 어려운 일이 벌어질지 모를 육중한 탐밀으로 육박해들어가는 그는 연공직장 초급당비에서 김영철장을.

그의 뒤를 따라 당원들이 리통호, 정도선동무들도 탐밀에 자기의 한 몸을 서슴없이 들었다. 톡성 당원들이 일인줄 알면서도 순간의 주저도 없이 격전장에 용약 뛰여든 당원들이 주유원, 진평일, 리철근, 유태우, 허정우, 정진철 등 제기되는 각 종 당원들의 제작과 설치를 당경에서 조아악은 날자까지 기어이 완성하여 불가능을 모르는 당원들의 결심이 결코 빙 말이 아님을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그 비결은 다른데 있지 않다. 우리와 만난 도당일군인 전인철 동무는 격전의 3·9일을 뜨겁게 추억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낮이나 밤이나 전투를 벌리다가도 우리 당원들과 건설자들은 위대한 장군님 계시는 저멀리 평양의 하늘가를 바라보며 힘을 얻은 히트입니다. 가스화기제련합기업소의 설계 실제당원인 한천동무, 기능공이며 오랜 당원들이 지동명, 박춘실동무들은 대형 암죽기시운전과 공기려파기제작을 비롯하여 기술적으로 뛰어난 힘을 얻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시련이 막아서 때마다 결사판철의 정신을 지닌 이런 당원들의 불굴의 정신력을 떠나면서 수소정제탑을 비롯한 열교환기, 향각기, 변성탑, 탄산가스흡착탑 등 수십대의 현대적인 설비를 다수 받아들여 대처해온 힘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힘 있는 부대, 혁사가 있는 건설부대로 자랑떨쳐온 설비조립련합기업소의 당원들은 그 기간을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 그 어떤 조건이 좋아서가 아니었다.

그들만이 아니라 천광업

연공직장 연공들이 수소정제 탑을 설치할 때에 있은 일이다. 그날따라 세찬 바다비람이 불어면서 탑을 들어올리던 기중기가 중심을 잡지 못하여 한쪽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하였다.

바로 이때 남먼저 고임목을

들고 중량물인 수소정제탑으로 달려가는 사람이 있다.

『기증기, 탐을 내리라!』

비록 같은 웨침소리와 함께

비호각이 몸을 날려 언제 어려운 일이 벌어질지 모를 육중한 탐밀으로 육박해들어가는 그는 연공직장 초급당비에서 김영철장을.

그의 뒤를 따라 당원들이 리통호, 정도선동무들도 탐밀에 자기의 한 몸을 서슴없이 들었다. 톡성 당원들이 일인줄 알면서도 순간의 주저도 없이 격전장에 용약 뛰여든 당원들이 주유원, 진평일, 리철근, 유태우, 허정우, 정진철 등 제기되는 각 종 당원들의 제작과 설치를 당경에서 조아악은 날자까지 기어이 완성하여 불가능을 모르는 당원들의 결심이 결코 빙 말이 아님을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그 비결은 다른데 있지 않다.

우리와 만난 도당일군인 전인철

동무는 격전의 3·9일을 뜨겁게

추억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낮이나 밤이나 전투를 벌리다가도 우리 당원들과 건설자들은 위대한 장군님 계시는 저멀리 평양의 하늘가를 바라보며 힘을 얻은 히트입니다. 가스화기제련합기업소의 설계 실제당원인 한천동무, 기능공이며 오랜 당원들이 지동명, 박춘실동무들은 대형 암죽기시운전과 공기려파기제작을 비롯하여 기술적으로 뛰어난 힘을 얻었습니다.</p

당의 선군령도를 한마음한뜻으로 받드는 뜨거운 충정과 숭고한 애국심

존건희 이어지는 사랑스러운 원군기풍

나라의 과학기술인재 양성사
업과 최첨단돌파전에서 많은
성과를 이루고자 있는 김책공
업종합대학 정보과학기술대학
에는 또 하나의 자랑이 있다.
그것은 세대를 이어 변함없이
꽃펴나는 교정의 자랑스러운
전통, 원군기이다.

위대한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인민군대를 사랑하고 잘
도와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군인들이 눈보라와 찬비를

맞으며 조국의 밤성을 굳건히

지켜서 있기 때문에 마음

놓고 사회주의건설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군인들을 친자식처럼 아끼고

사랑하며 진심으로 도와

주어야 합니다.』

올해 들어와서만도 대학으

로는 여러 풍의 감사편지들이

들어왔다.

뜻깊은 2월의 명절을 맞으

며 조국방선을 지켜선 인민군

인들에게 많은 뜻의 원호문

자를 보내준 송주성 학생과

위대한장군님께서 강성도국진

설의 최전선이라고 하면서 어

려차례 찾으셨던 희천발전소

건설장에 달려가 군인건설자들

을 물심량면으로 적극 원호한

김책공업종합대학 정보과학기술대학

교직원, 학생들

순대성 학생을 비롯하여 여러
학년대 학생들의 소행을 전하는
것은 세대를 이어 변함없이

꽃펴나는 교정의 자랑스러운

전통, 원군기이다.

그들은 순서에 편지로
그들의 앞장에는 언제나 대학

의 일군들이 서있었다. 조국의

천리방선초소를 지키는 병사들

은 다 나의 귀중한 아들들이

라고 하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멀고 험한 천선길을 걷고

걸으시는 위대한 장군님을 생

각하면 우리의 지성이 아직도

모자란다고 하면서 인민군인

들을 위한 일에 진심을 쏟아붓는

대학원군들의 모습은 교직원,

학생들의 원군의를 더욱

복돋아주었다.

몇 해 전 대학에서는 어느 한
중요대상건설에서 위훈떨치고
있는 군인건설자들을 도와주는

문제를 놓고 전진한 토의가 있

었다. 천현율을 위하여 심정으

로 원호물자들을 마련하여 보

기뻐서였다.

지난 한 대학에서는 우리

의 선군정치를 높이 발휘하고

전체 교직원, 학생들이 조국의

방선을 철썩으로 지켜가는 인

민군인들을 적극 원호하는

대학원군들도 조직적 사업을

짜고들었다.

원군은 최대의 애국이고 원

군미 풍속에 선군시대가 및 난

다고 하신 위대한장군님의

가르침을 심장에 새기고 원

우리에게 말하였다.

『모두 좋은 의견들입니다.

오르고 과학탐구의 날개를 활짝

펼치여가는 선군시대 교직원,

학생들로서 옹당 할 일을 한 자

기들의 소행을 그토록 깊이

내세우시며 그나마 영광을 안겨

주신 장군님의 뜨거운 사랑과

믿음에 두들겨시며 그들은 심장

의 맹세를 다지였다.

(위대한장군의 전선길을

따르는 신령의 원군길, 애국의

원군길을 더욱 억세게 걸어가

겠습니다.)

교정의 세대는 바뀌여도 신

념의 맹세는 변함없이 이어지

고 있다.

대학의 교직원, 학생들 속에

서는 인민군대를 둡는 일을 적

기획·운영하기 위한 사업이 경쟁

적으로 벌어지고 그 과정에

많은 성과들이 이룩되었다.

지난해에도 임명제, 리정삼

동무를 비롯한 교원들과 암명

일, 김남일 등 학생들은 지혜

와 열정을 다 바쳐 인민군대의

전투력을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좋은 일을 하여 위대한장군님

의 감사를 받아안게 되었다.

뜻깊은 2월의 명절을 맞으

며 조국방선을 지켜선 인민군

인들에게 많은 뜻의 원호문

자를 보내준 송주성 학생과

위대한장군님께서 강성도국진

설의 최전선이라고 하면서 어

려차례 찾으셨던 희천발전소

건설장에 달려가 군인건설자들

을 물심량면으로 적극 원호한

원군기풍입니다.

본사기자 허명숙

초소에서 보내온 감사편지

선천군사회급양관리소 김경애동무와 봉사자들

올해 초 어느 날이었다. 선천
군당위원회에 한 통의 편지가

들어왔다. 인민군인들을 위해 운

갖 지성을 바쳐고 있는 조

회급양관리소의 한 식당책임자

김경애동무와 봉사자들의 소행

이 편지에 실려있었다.

위대한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인민은 인민군대를 친철

육처럼 사랑하고 불심량면

으로 지원하며 인민군대를

강화하는 사업에 적극 이바

지하여야 합니다.』

2004년 4월 20일

2004년

위인 흡모의 정태양의 꽃에 담아

온갖 꽃들이 앞을 다투며 피어나는 화창한 4월이다. 하늘엔 따사른 빛님하고 땅우에 해님을 우러러 꽂팅을 마음껏 터치며 절은 향기 풍기는 4월의 흥은 환희의 계절, 희망의 계절이다.

우리 민족에 있어서 4월은 단지 자연의 봄계절, 꽃계절만이 아닌 흡모의 계절, 위인청송의 계절이다. 4월이 오면 더욱 뜨거워지는 남녀겨레들의 위인청송의 마음은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인류의 절절한 그리움과 흠모의 정이 모이고 모이는 김일성화축전장으로 끌어온다. 오늘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인류의 열화같은 흠모심이 어린 위인청송의 흠모를 김일성화는 남녀겨레들의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고 일년사절마다 말하고 있다.

몇해 전 4월, 뜻깊은 태양절을 하루 앞둔 대구의 최민언 주민의 가정에는 밤길도록 불이 켜 질렀다. 절세의 영상이 숭엄하게 안겨오는 김일성화꽃바구니를 엎드린 그의 가정은 고마운 계시는 김일성화꽃바구니를 품고 있다. 정히 김일성화꽃바구니를 엎고난 그의 가족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멀리 평양하늘을 우리 르며 삼가 큰걸을 드리었다. 최근 남조선에서 매일과 같이 벌어지고 있는 북침전쟁연습은 조선반도정책을 더욱 격화시키고 있다.

지난 13일 피뢰호 전 광들은 남조선 강원도 고성군 거진주변 해상에서 피뢰해군 제1 함대 합동선들과 공군의 비행기들, 특공 해안포 부대, 해양경찰을 포함한 방대한 무력을 동원하여 우리에 대한 선제공격을 노린 군사연습을 광란적으로 벌려놓았다.

올해 들어와서만도 피뢰해군 제1 함대인 경우 각 군종무력과의 합동훈련을 매달 벌리고 있다. 이에 앞서 호전 광들은 그 누구의 「도발」에 대비 하여 민간, 행정부, 경찰과의 통합전투준비태세를 확립한 후 소동을 피웠다.

한편 호전 광들은 해병대에 항공부대를 새로 나오는데 꿈틀하고 있다. 피뢰호전 광들의 무모한 전쟁광증은 북남사이의 대결상태를 허물고 나갈것을 바라는 온 겨례의 지향과 시대

니를 마련하였다. 소식을 어느새 알았는지 환희에 넘쳐 그것을 보려 많은 사람들이 찾았던 것이다. 그는 자기 집을 찾는 사람들에게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만민 칭송의 마음으로, 민족의 어버이로 모신

들이 한데 모이는 김일성화축전에 참가하는 심정으로 정성껏 꽃을 꾸렸다고 격정을 품어온 그의 말에 감동을 금지 못하며 「디음해 태양절」에는 김일성화를 아름답게 피워 가지고 태양화축전에 꼭 참가하자고 그를 데려왔다. 그면서 그는

김일성화축전장을 두고 있기에 그들은 언제나 봄계절에 사는 것이다.

태양절을 앞두고 서울에 사는 한 원예사는 자기가 정성껏 가꾸어온 김일성화를 동료들을 높이 모신 것은 우리 민족의 더없이 영광이며 행복이라며 걱정을 려왔다. 그는 그의 이름을 붙여 넣은 김일성화, 이 꽃의 이름다운 우리 민족의 땅이라 칭찬은 요란하다.

김일성화를 꾸려온 그는 그의 말에 감동을 금지 못하며 「디음해 태양절」에는 김일성화를 아름답게 피워 가지고 태양화축전에 꼭 참가하자고 그를 데려왔다. 그면서 그는

김일성화축전장을 두고 있기에 그들은 언제나 봄계절에 사는 것이다.

태양절을 앞두고 서울에 사는 한 원예사는 자기가 정성껏 가꾸어온 김일성화를 동료들을 높이 모신 것은 우리 민족의 더없이 영광이며 행복이라며 걱정을 려왔다. 그는 그의 이름을 붙여 넣은 김일성화, 이 꽃의 이름다운 우리 민족의 땅이라 칭찬은 요란하다.

김일성화를 꾸려온 그는 그의 말에 감동을 금지 못하며 「디음해 태양절」에는 김일성화를 아름답게 피워 가지고 태양화축전에 꼭 참가하자고 그를 데려왔다. 그면서 그는

김일성화축전장을 두고 있기에 그들은 언제나 봄계절에 사는 것이다.

김일성화축전은 이 세상의 유일한 태양화축전이다. 나의 윤님은 태양화축전장으로 끌려온 그날 평양에서 열리는

의 요구에 전적으로 배치되었다.

하기에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은 투쟁의 거리에 떠나서 보수당국의 대결전쟁책 등을 규탄하였다.

얼마전 남조선의 경기도 려 주군의 각계층 인민들은 피뢰

침회에서는 당국이 복이 제의 한 대회와 협력을 뿐만 아니라 열린 회장을 확장하고자 했지만 비난의 목소리가 울려나왔다.

집회참가자들은 북침전쟁책 등의 중지와 북남협력과 통일을 주장하면서 통일성명을 발표하였다.

그들은 당국의 무모한 전쟁연습을 규탄하면서 각계시민사회단체원들이 떠나온 학술본부, 청년학생본부도 집회를 열고 당국의 대결전쟁책 등을 강력히 규탄하였다.

집회에서는 당국이 복이 제의 한 대회와 협력을 뿐만 아니라 열린 회장을 확장하고자 했지만 비난의 목소리가 울려나왔다.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호전 광들이 평양으로 군사적 진장을 확장시키고 있다고 폭로하였다. 그러면서 그들은 당국이 미국과 약합한 북침합동군사연습연습을 당장 걸어치우고 대결전쟁책을 시급히 전환할 것을 요구하였다.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호전 광들이 평양으로 군사적 진장을 확장시키고 있다고 폭로하였다. 그러면서 그들은 당국이 미국과 약합한 북침합동군사연습연습을 당장 걸어치우고 대결전쟁책을 시급히 전환할 것을 주장하였다.

현 보수당국의 반민족적인 대결전쟁책 등을 반대하고 조선반도의 평화를 수호하려는 남조선 각계층 인민들의 투쟁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고조되고 있다.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호전 광들이 평양으로 군사적 진장을 확장시키고 있다고 폭로하였다. 그러면서 그들은 당국이 미국과 약합한 북침합동군사연습연습을 당장 걸어치우고 대결전쟁책을 시급히 전환할 것을 주장하였다.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호전 광들이 평양으로 군사적 진장을 확장시키고 있다고 폭로하였다. 그러면서 그들은 당국이 미국과 약합한 북침합동군사연습연습을 당장 걸어치우고 대결전쟁책을 시급히 전환할 것을 주장하였다.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호전 광들이 평양으로 군사적 진장을 확장시키고 있다고 폭로하였다. 그러면서 그들은 당국이 미국과 약합한 북침합동군사연습연습을 당장 걸어치우고 대결전쟁책을 시급히 전환할 것을 주장하였다.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호전 광들이 평양으로 군사적 진장을 확장시키고 있다고 폭로하였다. 그러면서 그들은 당국이 미국과 약합한 북침합동군사연습연습을 당장 걸어치우고 대결전쟁책을 시급히 전환할 것을 주장하였다.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호전 광들이 평양으로 군사적 진장을 확장시키고 있다고 폭로하였다. 그러면서 그들은 당국이 미국과 약합한 북침합동군사연습연습을 당장 걸어치우고 대결전쟁책을 시급히 전환할 것을 주장하였다.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호전 광들이 평양으로 군사적 진장을 확장시키고 있다고 폭로하였다. 그러면서 그들은 당국이 미국과 약합한 북침합동군사연습연습을 당장 걸어치우고 대결전쟁책을 시급히 전환할 것을 주장하였다.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호전 광들이 평양으로 군사적 진장을 확장시키고 있다고 폭로하였다. 그러면서 그들은 당국이 미국과 약합한 북침합동군사연습연습을 당장 걸어치우고 대결전쟁책을 시급히 전환할 것을 주장하였다.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호전 광들이 평양으로 군사적 진장을 확장시키고 있다고 폭로하였다. 그러면서 그들은 당국이 미국과 약합한 북침합동군사연습연습을 당장 걸어치우고 대결전쟁책을 시급히 전환할 것을 주장하였다.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호전 광들이 평양으로 군사적 진장을 확장시키고 있다고 폭로하였다. 그러면서 그들은 당국이 미국과 약합한 북침합동군사연습연습을 당장 걸어치우고 대결전쟁책을 시급히 전환할 것을 주장하였다.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호전 광들이 평양으로 군사적 진장을 확장시키고 있다고 폭로하였다. 그러면서 그들은 당국이 미국과 약합한 북침합동군사연습연습을 당장 걸어치우고 대결전쟁책을 시급히 전환할 것을 주장하였다.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호전 광들이 평양으로 군사적 진장을 확장시키고 있다고 폭로하였다. 그러면서 그들은 당국이 미국과 약합한 북침합동군사연습연습을 당장 걸어치우고 대결전쟁책을 시급히 전환할 것을 주장하였다.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호전 광들이 평양으로 군사적 진장을 확장시키고 있다고 폭로하였다. 그러면서 그들은 당국이 미국과 약합한 북침합동군사연습연습을 당장 걸어치우고 대결전쟁책을 시급히 전환할 것을 주장하였다.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호전 광들이 평양으로 군사적 진장을 확장시키고 있다고 폭로하였다. 그러면서 그들은 당국이 미국과 약합한 북침합동군사연습연습을 당장 걸어치우고 대결전쟁책을 시급히 전환할 것을 주장하였다.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호전 광들이 평양으로 군사적 진장을 확장시키고 있다고 폭로하였다. 그러면서 그들은 당국이 미국과 약합한 북침합동군사연습연습을 당장 걸어치우고 대결전쟁책을 시급히 전환할 것을 주장하였다.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호전 광들이 평양으로 군사적 진장을 확장시키고 있다고 폭로하였다. 그러면서 그들은 당국이 미국과 약합한 북침합동군사연습연습을 당장 걸어치우고 대결전쟁책을 시급히 전환할 것을 주장하였다.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호전 광들이 평양으로 군사적 진장을 확장시키고 있다고 폭로하였다. 그러면서 그들은 당국이 미국과 약합한 북침합동군사연습연습을 당장 걸어치우고 대결전쟁책을 시급히 전환할 것을 주장하였다.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호전 광들이 평양으로 군사적 진장을 확장시키고 있다고 폭로하였다. 그러면서 그들은 당국이 미국과 약합한 북침합동군사연습연습을 당장 걸어치우고 대결전쟁책을 시급히 전환할 것을 주장하였다.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호전 광들이 평양으로 군사적 진장을 확장시키고 있다고 폭로하였다. 그러면서 그들은 당국이 미국과 약합한 북침합동군사연습연습을 당장 걸어치우고 대결전쟁책을 시급히 전환할 것을 주장하였다.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호전 광들이 평양으로 군사적 진장을 확장시키고 있다고 폭로하였다. 그러면서 그들은 당국이 미국과 약합한 북침합동군사연습연습을 당장 걸어치우고 대결전쟁책을 시급히 전환할 것을 주장하였다.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호전 광들이 평양으로 군사적 진장을 확장시키고 있다고 폭로하였다. 그러면서 그들은 당국이 미국과 약합한 북침합동군사연습연습을 당장 걸어치우고 대결전쟁책을 시급히 전환할 것을 주장하였다.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호전 광들이 평양으로 군사적 진장을 확장시키고 있다고 폭로하였다. 그러면서 그들은 당국이 미국과 약합한 북침합동군사연습연습을 당장 걸어치우고 대결전쟁책을 시급히 전환할 것을 주장하였다.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호전 광들이 평양으로 군사적 진장을 확장시키고 있다고 폭로하였다. 그러면서 그들은 당국이 미국과 약합한 북침합동군사연습연습을 당장 걸어치우고 대결전쟁책을 시급히 전환할 것을 주장하였다.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호전 광들이 평양으로 군사적 진장을 확장시키고 있다고 폭로하였다. 그러면서 그들은 당국이 미국과 약합한 북침합동군사연습연습을 당장 걸어치우고 대결전쟁책을 시급히 전환할 것을 주장하였다.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호전 광들이 평양으로 군사적 진장을 확장시키고 있다고 폭로하였다. 그러면서 그들은 당국이 미국과 약합한 북침합동군사연습연습을 당장 걸어치우고 대결전쟁책을 시급히 전환할 것을 주장하였다.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호전 광들이 평양으로 군사적 진장을 확장시키고 있다고 폭로하였다. 그러면서 그들은 당국이 미국과 약합한 북침합동군사연습연습을 당장 걸어치우고 대결전쟁책을 시급히 전환할 것을 주장하였다.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호전 광들이 평양으로 군사적 진장을 확장시키고 있다고 폭로하였다. 그러면서 그들은 당국이 미국과 약합한 북침합동군사연습연습을 당장 걸어치우고 대결전쟁책을 시급히 전환할 것을 주장하였다.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호전 광들이 평양으로 군사적 진장을 확장시키고 있다고 폭로하였다. 그러면서 그들은 당국이 미국과 약합한 북침합동군사연습연습을 당장 걸어치우고 대결전쟁책을 시급히 전환할 것을 주장하였다.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호전 광들이 평양으로 군사적 진장을 확장시키고 있다고 폭로하였다. 그러면서 그들은 당국이 미국과 약합한 북침합동군사연습연습을 당장 걸어치우고 대결전쟁책을 시급히 전환할 것을 주장하였다.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호전 광들이 평양으로 군사적 진장을 확장시키고 있다고 폭로하였다. 그러면서 그들은 당국이 미국과 약합한 북침합동군사연습연습을 당장 걸어치우고 대결전쟁책을 시급히 전환할 것을 주장하였다.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호전 광들이 평양으로 군사적 진장을 확장시키고 있다고 폭로하였다. 그러면서 그들은 당국이 미국과 약합한 북침합동군사연습연습을 당장 걸어치우고 대결전쟁책을 시급히 전환할 것을 주장하였다.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호전 광들이 평양으로 군사적 진장을 확장시키고 있다고 폭로하였다. 그러면서 그들은 당국이 미국과 약합한 북침합동군사연습연습을 당장 걸어치우고 대결전쟁책을 시급히 전환할 것을 주장하였다.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호전 광들이 평양으로 군사적 진장을 확장시키고 있다고 폭로하였다. 그러면서 그들은 당국이 미국과 약합한 북침합동군사연습연습을 당장 걸어치우고 대결전쟁책을 시급히 전환할 것을 주장하였다.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호전 광들이 평양으로 군사적 진장을 확장시키고 있다고 폭로하였다. 그러면서 그들은 당국이 미국과 약합한 북침합동군사연습연습을 당장 걸어치우고 대결전쟁책을 시급히 전환할 것을 주장하였다.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호전 광들이 평양으로 군사적 진장을 확장시키고 있다고 폭로하였다. 그러면서 그들은 당국이 미국과 약합한 북침합동군사연습연습을 당장 걸어치우고 대결전쟁책을 시급히 전환할 것을 주장하였다.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호전 광들이 평양으로 군사적 진장을 확장시키고 있다고 폭로하였다. 그러면서 그들은 당국이 미국과 약합한 북침합동군사연습연습을 당장 걸어치우고 대결전쟁책을 시급히 전환할 것을 주장하였다.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호전 광들이 평양으로 군사적 진장을 확장시키고 있다고 폭로하였다. 그러면서 그들은 당국이 미국과 약합한 북침합동군사연습연습을 당장 걸어치우고 대결전쟁책을 시급히 전환할 것을 주장하였다.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호전 광들이 평양으로 군사적 진장을 확장시키고 있다고 폭로하였다. 그러면서 그들은 당국이 미국과 약합한 북침합동군사연습연습을 당장 걸어치우고 대결전쟁책을 시급히 전환할 것을 주장하였다.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호전 광들이 평양으로 군사적 진장을 확장시키고 있다고 폭로하였다. 그러면서 그들은 당국이 미국과 약합한 북침합동군사연습연습을 당장 걸어치우고 대결전쟁책을 시급히 전환할 것을 주장하였다.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호전 광들이 평양으로 군사적 진장을 확장시키고 있다고 폭로하였다. 그러면서 그들은 당국이 미국과 약합한 북침합동군사연습연습을 당장 걸어치우고 대결전쟁책을 시급히 전환할 것을 주장하였다.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호전 광들이 평양으로 군사적 진장을 확장시키고 있다고 폭로하였다. 그러면서 그들은 당국이 미국과 약합한 북침합동군사연습연습을 당장 걸어치우고 대결전쟁책을 시급히 전환할 것을 주장하였다.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호전 광들이 평양으로 군사적 진장을 확장시키고 있다고 폭로하였다. 그러면서 그들은 당국이 미국과 약합한 북침합동군사연습연습을 당장 걸어치우고 대결전쟁책을 시급히 전환할 것을 주장하였다.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호전 광들이 평양으로 군사적 진장을 확장시키고 있다고 폭로하였다. 그러면서 그들은 당국이 미국과 약합한 북침합동군사연습연습을 당장 걸어치우고 대결전쟁책

